

## 참여연구원 칼럼

## 그래서 대체 마음이 뭐죠?

박 세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마음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내 몸과 얼굴과 입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나조차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지만, 최소한 나는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떠미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 나의 외면을 통해 번역될 수 있는 마음, 그러나 너에게도 나에게도 비가시적인 것으로 머무는 마음을, 나는 내 내면의 현상으로서 경험한다. 마음은 내 안에, 내 몸 안에 있다.

그렇다면 마음은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다음과 같은 익숙한 대답들이 있다. 마음은 몸의 동작과 행동을 지배한다(그러니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마음은 생각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갖는 인간성의 토대다(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 본질, 생명성의 원천이다(하어 마음을 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등등. 이 진술들은 공히 몸에 대한 마음의 우위를 천명하고 있는바, 마음이 하는 일에 대한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계 안에 있음'에 대한 특정한 이해로 이끌린다. 사회과학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주체를 구성하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마음을 설정하고자 하는 유혹, "사회적 행위가 솟아나오는 원천, 즉 인간 행위능력의 최종 소재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한 번쯤 솔깃하지 않은 이 누가 있는가?

문제는 마음의 역능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정한 무지와 함께 간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체 마음이 뭐죠?"라는 질문은 남북한마음통합센터의 연구자들이 흔히 듣는 질문이자, 주기적으로 자문하지만 말씀드리지 않는 질문이기도 하다. 마음에 대해 알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음에 대한 앞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한 이유는 마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개념들로 돌려보낸다는 사실에 있다. 예컨대 정신, 영혼, (무)의식, 이성, 감정, 정동, 욕망, 인지, 지각, (초)자아, 생명력, 주체성, 이/기, 성·정·의·지와 같은, 그 자체로도 자명하지만은 않은 개념들로. 마음은 개인 안에 있는 것이지만 집합적으로 공유되는 것이기도 하기에, 가치관, 세계관, 민족성, 풍속, 이념,

에토스, 망탈리테, 문화, 이데올로기와 같은 개념들이 목록에 추가된다.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긴 개념의 사다리 어딘가에서 미끄러지게 마련이고, 그리하여 마음은 근본적으로 모호한 것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의미론적 과잉 상태 안에서, 마음 범주는 일정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행위가 솟아나오는 원천이 마음이라고 치자. 하지만 마음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 작동하는 것이자, 나아가 행위의 효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마음은 원인이자 과정이자 결과일 것이다. 마음은 또한 질이자 상태, 추상적인 것이자 구체적인 것, 무형의 것이자 물질적인 것, 인지적인 것이자 정서적인 것, 논리의 극복이자 논리에의 종속, 개인 안에 있는 것이자 바깥에 있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의 물음에서 쉽사리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체 마음이 뭐죠?

이 질문 앞에 여전히 무기력한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둘째,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것을 주체를 구성하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설정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음의 풍경'이라고 은유적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의 스케치에 만족한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다. 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확고한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설명의 근본 원리로 설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북한 사람들이 가진 '마음의 풍경'을 그리는 데에는 이러한 설정 자체가 애초에 불필요한 것이다. 물론 언젠가는 이 풍경을 설명해야 할 순간이 오겠지만,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두 가지 카드 사이에서 고민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기를 계속하거나(그래서 계속 미끌어지거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거나. 나라면 후자에 판돈을 걸겠다.

## 기획기사

## ‘단일팀 비판’ 2030이 보수? ‘숙제’ 생긴 문재인 정부\*

[분석] 생존욕구 따라 유불리 선택하는 젊은 층, 지극히 현실적 선택

최 종 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가 연일 관심거리다. 지난 1일 김정은의 신년사가 신호탄이었다. 이번 올림픽을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그는 아낌없는 지원과 선수단, 응원단 파견을 시사했다. 메시지는 강렬했고,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지난 9일 통일부는 2년여 년 만에 북한 당국자와 머리를 맞댔다. 실무협약까지 열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 결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단일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선수들에게 단일팀에 대한 의견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결정은 순식간에 이뤄졌다. 그러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여자 아이스하키는 우리가 세계랭킹 22위, 북한이 25위로 메달권 밖”이라는 취지로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항의 서한을 IOC에 제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9일 오전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통일부

눈여겨 볼 점은 단일팀에 대한 여론의 향방이다. 특히 2030세대들이 단단히 뿔났다. 취업 준비로 바쁜 삶을 보내는 청년들은 ‘남북 단일팀이 스포츠의 공정한 룰을 위반하는 일이며 북한 선수들은 정부의 낙하산’이라고 비판했다. 프로팀이 전무한 데다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올림픽 출전 하나만을 보고 수년을 고생했다는 대표팀의 스토리가 전해지자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다. 국회의장실과 SBS가 의뢰하고 한국리서치가 9일과 10일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대 중 남북단일팀 구성에 찬성하는 사람은 16.4%, 반대하는 사람은 82.2%였다. 10명 중 8명은 이번 단일팀 결정에 반대한 꼴이다. 반면, 60대 이상 중 찬성은 31.7%, 반대 67.1%로 나와 대조를 이뤘다.

남북단일팀에 대한 젊은층의 의견이 부정적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조차 지난 22일 “20~30대가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했을 정도다(2018년 1월 22일 <뉴스시스> 靑 “남북단일팀에 2030 민감 반응 예상 못했다”). 반발심리가 큰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구호와 배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수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룰을 중요하게 여길 줄은 알았지만 정책결정의 오판이 큰 화를 자초한 것이다.

2030세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북한을 사뭇 다른 존재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이 거의 없는데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핵·미사일 위협 등이 더해져 좋은 기억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9년 간 대북정책을 편 보수 정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군사안보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켰고, 독재국가로 표상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 결과 젊은층에게 북한은 심리적 거리는 물론 통일의 대상과도 서서히 멀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 기획기사

## 2030세대, 북한 '적대대상' 인식 커

표면적으로 단일팀에 대한 젊은층의 반발로 보이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불신은 훨씬 깊어 보인다.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3월 펴낸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젊은층의 남북통합 수치는 다른 연령대보다 매우 낮았다. 그 해 3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57.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42.2%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다.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016년(62.1%) 대비 4.3%p, 2014년(69.3%) 대비 11.5%p 하락한 것으로 2014년 조사 이후 계속 떨어졌다. 이 가운데 20대는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8.8%로 모든 계층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원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답변 항목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 구분해 11점 척도(0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0점: 매우 동의한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했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이 6.5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적대대상'(5.96점), '협력대상'(4.89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계대상' 응답은 2014년 이후 1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대비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치는 하락세가 뚜렷했다. '지원대상'의 경우 2016년 대비 0.71점 하락했으며,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0.36점으로 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20~30대의 북한에 대한 보수적 인식이었다. 이들은 북한을 '지원대상'과 '협력대상'으로 여기는 시각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떨어졌고,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으로 여기는 수치는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이념의 주요 결정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는 의미가 크다. 2030세대가 북한에 적대적 인식을 가지면서 점차 보수화되고 있지 않냐는 지적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서다. 특히 이들이 향후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리더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남북통합과 통일정책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최근 불거진 단일팀 논란은 2030세대의 대북한 인식이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 북한 싫다고 보수는 아냐

그러나 북한에 적대적 인식을 보인 2030세대가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를 분석한 김정훈·한상익 연구팀은 <신화의 붕괴, 그리고 희망의 정치>라는 논문에서 "2040세대의 야권 성향은 반공주의와 권위주의적 산업화 시대를 살았던 그 이전의 세대와 달리 민주주의와 탈권위주의적 정보화 시대에 젊은 시기에 보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4·13총선 투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의 투표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25~29세)의 총선 투표율은 49.8%로 19대 선거보다 11.9%p 올랐다. 20대 전반(20~24세)이 55.3%로 9.9%p, 30대 전반이 48.9%로

7.1%p 올랐다. 반면, 50대는 19대 62.4%에서 20대 60.8%로 줄었고, 60대 이상의 경우 68.6%에서 68.7%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분노투표'로 설명했다. 분노투표는 200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붕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의 전환과 연관된 세계적인 현상으로 2040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불평등 심화로 기성 정치권을 극도로 불신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20대 총선 결과는 보수정권 8년의 간 누적된 분노를 타파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간 언론의 사회면을 뒤덮은 '헬조선'과 '수저계급론' 등은 청년세대의 고단함을 상징하는 단어였다. 정부가 낡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복하거나 심지어 권위주의적 산업화 시기의 관행이 젊은 세대의 불신을 받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 기획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남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정책브리핑

## 생존욕구가 만들어낸 현실적 선택

단일팀 논란으로 불거진 젊은층의 반대 여론은 그래서 단순히 이념성향이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보기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라는 논문에서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날 젊은 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토는 '생존(survival)'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청년들이 각자도생의 전략을 세우고,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를 꿈꾸는 자들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며 “생존이 급선무가 된 행위자들에게는, ‘생존주의’를 마음으로부터 구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선택이다”고 지적했다. 생존주의는 삶의 근경에 직면한 청년들이 자신들에게 제기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투 속에서 형성된 집합심리다.

실제로 1997년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동은 청년들이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의 위계와 배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보다 단단한 마음가짐과 넉넉한 자원,

전략적 행위들이 필요해졌다.

현실적인 문제를 생존의 욕구차원으로 여기는 젊은층은 가감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경향이 크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확인했듯 이들은 자신의 삶을 피곤하게 만든 집권세력을 투표로서 응징(?)하는 데 힘을 보탤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고 예외가 아니다. 젊은층이 대체적으로 사회개혁을 원하는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현 정부의 실책까지 감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일팀 반대 여론처럼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소통부재로 정책혼선이 빚어질 경우 얼마든 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너무 당연하리라 여겼던 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됐다. 고차 방정식의 북한 문제까지 풀어야 하는 정부는 더욱 큰 숙제를 안은 셈이다.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줄 거라 생각했던 오만은 경계해야 한다. 2030세대는 기성세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극히 ‘현실적’이다.

\* 본 기사는 2018년 1월 24일 ‘오마이뉴스’에 기고된 기사입니다.



## 연구성과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분단의 마음과 환대의 윤리: '태극기'집회 참가자들과 탈북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5호 (2017)

이 글은 촛불집회라는 국면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는 무엇이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한국사회 내부에 침잠해있던 갈등과 대립의 구조가 수면위로 부상하였고, 촛불집회의 주체로 명명된 '시민'이나 '우리'의 표식 내에서도 소외된 주체들은 존재했다. 예컨대 '태극기'로 대표되는 세력은 극우적인 메시지와 반공이데올로기를 적극 활용하여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을 전면화 하였고, 촛불시민 또한 국민국가적인 집단정체성을 필요충분조건으로 가정하면서 그 내부의 차이를 간과하기도 하였다. 사실 한국사회의 대부분의 시민은 다양한 사회적 공간과 다층적인 시간성에서 소외된 경험이 있다. 이 글은 한국사회의 현 상황을 복수의 시간성과 공간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로

파악하고, 이러한 구조 내에 정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행위주체의 문제를 '태극기'로 대표되는 노인 집단과 탈북자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태극기'에 참여한 노인 집단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시간 구조에서 탈락한 이들이며, 탈북자의 경우 분단으로 인해 자신의 장소를 잃어버린 이들이다. 이들과의 공존이 가능한 미래는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지금-여기'의 시공간에서 정박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배제와 결핍의 경험을 서로 공감하면서 윤리적 존재로서 연대를 모색할 때 상상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분단'이 만들어낸 분단된 사회적 마음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공통의 윤리적 가치의 구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일 이후 독일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21권 1호 (2017)

본 연구는 통일된 지 30년이 가까워지는 현 시점에서 독일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봄으로써 미래 한국의 통일사회에서 남북한출신 주민과 이주배경주민간의 갈등상황을 예측해보고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원주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 생활 스트레스에서 구동독출신과 구서독출신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적은 집단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학력은 직업학교와 실업학교, 전문학교 재학 및 졸업자들의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셋째,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는 삶의 만족도가, 부정적 태도에는 생활스트레스와 주관적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다른 차원임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미래 통일한국사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단 동정

1월 5일(금), 1월 19일(금) 사업단 학문후속세대세미나 실시되었습니다. 5일(금) 세미나에서는 최순미 박사(북한대학원대학교)가 “이미지 이론”에 관하여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19일(금) 세미나에서는 본 사업단 연구보조원인 최종환(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정고은(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김형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의 연구문제 발제가 있었습니다.

1월 12일(금) ~ 13일(토), SSK남북한 마음통합연구센터의 1차년도 연구기반조성 워크숍(장소: 제주 루체빌 리조트)이 진행되었습니다. 12일(금) 제주평화연구원, 극동문제연구소와 본 사업단의 공동 좌담회를 시작으로, 13일(토)에는 사업단 참여연구원들의 개별 연구문제 발제 워크숍이 실시되었습니다. 10여 명의 참여연구원들의 연구 문제 및 구체적 연구 진행 방법, 연구 진행 시기 등과 같은 실무적 내용을 포함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개별 연구 문제의 심층화와 체계적·효율적 연구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국제회의

## “남북한 마음통합을 보는 안과 밖의 시선”

일시: 2018년 1월 27일(토), 13:00 ~ 17:20  
 장소: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  
 주최: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후원: 한국연구재단

순서	내용	참여자
13:00-13:20		등록
13:20-13:30	개회사	이우영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장)
세션1. 해외공동연구원 연구주제 발표 13:30-15:00	사회	이우영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장)
	발표	“독일 통일을 접하는 분단국 주민의 마음”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학교)
		“분단 국가에서의 정치적 양극화 연구” 한스 모슬러 (베를린 자유대학교)
		“자이치 영화, 또는 운동주 한일다큐에 나타난 교향과 경계의 재현 미학” 이항진 (릿쿄대학교)
토론	신진욱 (중앙대학교), 전재호 (서강대학교), 배주연 (한국예술종합학교)	
15:00-15:20		Coffee Break
세션2. 라운드테이블: 남북한마음통합 연구의 회고와 전망 15:20-17:20	사회	구감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경과보고	연광석 (북한대학원대학교)
	토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수정 (덕성여자대학교),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최순미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스 모슬러 (베를린 자유대학교), 이항진 (릿쿄대학교), 이찬수 (서울대학교), 조정아 (통일연구원), 강순원 (한신대학교)

1월 27일(토) 13:00 ~ 17:30,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에서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주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남북한 마음통합을 보는 안과 밖의 시선”을 주제로 한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제 1세션에서 사업단 해외공동연구원인 이은정(베를린 자유대학교), 한스 모슬러(베를린 자유대학교), 이항진(릿쿄대학교)의 연구문제 발표와 신진욱(중앙대학교), 전재호(서강대학교), 배주연(한국예술종합학교)의 지정토론이 있었습니다. 제 2세션에서는 “남북한마음통합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목적으로, 지정토론으로 모신 이찬수(서울대학교), 조정아(통일연구원), 강순원(한신대학교)을 비롯하여 사업단 참여/전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세션을 통틀어, “남북한 마음통합”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들로서 “마음” 및 “마음체계”의 구성개념에 대한 논의, “마음통합”의 주제와 목적, 연구방법론, 그리고 인문학적, 철학적 고찰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가 진행된 이번 국제회의를 통하여 본 사업단의 연구 의제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고민과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연구단 동정

### 실험과 실천



◀ 1월 17일(수) 인천 중도초등학교에서 남북어울림 교사회와 본 사업단의 집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남북어울림교사회 주최 간담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집담회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탈북민 가정 및 탈북 청소년과의 교류 시 발생하는 다양한 일상 문제들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특히 남북어울림교사회측에서는 탈북 청소년 대상으로뿐만 아니라 그들과 직접 교류하는 남한의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며,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심리상담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을 특수한 '대상'으로 한정 짓지 않고,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진로/적성 캠프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1월 12일(금) 제주평화연구원, 극동문제연구소와 SSK남북한마음통합 연구센터의 공동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제 1세션에서 “2018년 한반도 정세전망”을 주제로 정치(김갑식, 통일연구원), 경제(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분야에서의 발제와 지정토론(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기지운, 제주평화연구원)이, 제 2세션에서는 “한반도와 주변정세 전망”을 주제로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김성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지정토론과 참가자 전원의 자유토론이 실시되었습니다. 최근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대화가 재개된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의 이슈들뿐만 아니라 그간 경색되었던 남북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류에 관한 점검, 나아가 올 4월 예정되어있는 한미 군사훈련, 미국의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 등 향후 남북한 교류에서 분기점이 될 대내외적 이슈 등에 대하여 참가자들 간에 다방면에서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향후 일정

본 사업단과 DMZ국제다큐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다큐로 만나는 북한” 정기상영회가 오는 2월부터 8월까지, 매 월 1회(총 7회)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정기상영회는 분단, 북한사회, 재일동포, 이탈주민 등에 대한 다큐멘터리 상영과 강연 및 토론을 통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찰하고, 분단적 시각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2월 정기상영회는 24일 오후 2시,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확정 일시 및 상세 프로그램은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향후 안내)

2/22(목) 오후 4시(장소: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정기 콜로키움이 개최됩니다. 사업단 참여연구원들의 연구문제 발표로 이루어질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이수정 교수(“오랜 분단의 현재적 감각: 태극기의 마음”), 윤철기 교수(“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불평등구조에 대한(나타난) 마음의 갈등”)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23(금) 오전 9시~오후 6시(장소: LW 컨벤션), SSK 네트워크 통합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금번 심포지엄의 “리서치 트렌드 워크숍”에서 최순미 박사(북한대학원대학교)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2(금), 23(금) 사업단 학문후속세대세미나가 실시됩니다. 2일(금) 세미나에서는 이하연 박사(북한대학원대학교)의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집단심리”에 대한 발표가, 23일(금) 세미나에서는 연구보조원 김민지(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의 연구문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 인터뷰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승화시키고 흥행을 일으키는 데 핵심 요소인 이 질문에 관해 북한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 국면이 중단되는 건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남북 대화 추진과 북-미 대화 중재를 포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어떤 식으로든 평화 국면으로 들어서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갑우, “북 올림픽 참가가 평화 신호인 이유” / 한겨레 2018.01.0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를 갈등·위기에서 대화·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또한 이 기회를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기회를 적극 살리는 쪽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평화올림픽 구상과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너무 오래 유지한다. 빨리 응답해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당장 북핵 문제를 연계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갑우, “한-미 이간술로 치부 말고 미국에 대화 필요성 설득을” / 한겨레 2018.01.01.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전망 등을 놓고 전문 연구기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좌담회가 열린다. 제주평화연구원(원장 서정하)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단장 이우영) 등은 오는 12일 제주평화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18년 한반도 정세전망’을 주제로 한 공동 좌담회를 갖는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각 연구기관별로 한반도 평화 기반 구축 및 사회통합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내용을 공유하면서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제주서 한반도 정세 등 담론의 장” / 제주일보 2018.01.09.

국방부는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가 올림픽을 고려해 연합군사훈련을 4월로 연기했으나 북한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 대화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 개최’에 합의한 만큼 이 문제를 언급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구갑우, “국방부, 군사당국회담 준비 돌입” / 경향신문 2018.01.10.

##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결국 ‘평창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소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 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자간 안전보장 체제가 ‘평창 체제’ 안으로 들어와야 올림픽 이후에도 평화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갑우, “평창발 ‘100일 평화체제’…남북 넘어 북-미 대화 물꼬틀지 촉각” / 한겨레 2018.01.11.

북한이 평창겨울올림픽 축하공연에 나설 예술단의 방남 경로로 ‘판문점을 통한 육로’를 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판문점을 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어서, 북쪽의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경의선 쪽도 연결은 돼 있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된 상황에서 오가는 건 어렵고, (금강산 관광길이 막힌) 동해선 쪽도 마찬가지로”라며 “현재로선 판문점을 통한 육로 이동이 가장 편리한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갑우, “북 ‘예술단 대규모 판문점 통과’ 평화메시지 고려한 듯” / 한겨레 2018.01.16.

## 칼럼

지난 9일 열린 남북회담을 둘러싸고 보수언론이 아무리 회담의 ‘격’을 두고 탄축을 걸어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들먹이며 회담 결과에 생채기를 내도, 그리고 북한의 평화 ‘공세’에 당했다 해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무조건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빨갱이’만 운운하면 뭐든 전선이 만들어졌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지난겨울의 광장을 만들었던 이들의 열망은 현실 정치와 작금의 언어 밖으로 넘쳐 나간다. 어쩌면 이번 정부의 가장 두려운 상대는 과거 세력이 아니라, 이렇듯 전혀 다른 세상을 주문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일 것이다. 기존의 체계와 언어로 적당히 쫓아가서는 결코 그들의 요구에 다다를 수 없다. 걸모습과 이벤트로만 ‘다르게’ 행동하는 것 또한 금방 들켜버리고 말 것이다. 적폐라면 자신의 몸이라도 잘라낼 수 있는 단호함이 요구된다. 아주 작은 머뭇거림도 깨어 있는 이들은 놓치지 않는다. 두려워해야 한다.

김성경, “[야! 한국 사회] 1987과 촛불혁명” / 한겨레 2018.01.10.

## 칼럼 연재 : 책의 마음, 마음의 책



## “북한 정치체제에는 미스터리가 없다”

권헌익, 정병호, &lt;극장국가 북한&gt;, 창비, 2013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뉴턴의 고전역학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운동하려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한다는 것이다.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는 북한에서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작동하고 있는 권력의 법칙에 주목한다. 『극장국가』의 질문은, 탈식민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북한이 근대 국민국가체제에서 “또 하나의 나라”이고 혁명정치를 추구했던 국가들에서처럼 개인숭배와 같은 “카리스마의 관례화”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의 보편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카리스마 권력의 “세습적인 형태의 통치권 승계”를 이루어낸 이유다. 즉 북한에서 카리스마 권력이 관성처럼 지속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극장국가』의 목적이다.

『극장국가』는 북한의 이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해, 베버의 권력개념과 기어츠의 극장국가개념과 같은 이론적 자원을 동원한다. 그리고 북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문웅의 가족국가의 개념과 와다 하루키의 유격대국가의 개념을 베버 및 기어츠의 이론과 접목한다. 특히 와다 하루키의 『북조선』은 『극장국가』의 선행연구다. 와다는 북한이 1961년 국가사회주의체제를 완성한 후, 후계자 김정일의 주도로 “1970년 무렵 새로운 상부구조”로 “김일성을 사령관으로 하여 전 인민이 받드는 유격대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74년에 등장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는 유격대국가를 상징하는 북한의 구호다. 그리고 “김정일이 연출가이자 디자이너로 있는 북조선의 유격대국가”가 “권력의 행사 자체가 의식, 연극에 있다고 하는” 극장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극장국가』는 『북조선』에서 언급된 세 쪽 정도의 극장국가 북한에 대한 언급을 권력세습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어츠는 19세기 발리섬의 정치체인 네가라(Negara)의 왕실의례를 관찰하며, 상호작용하는 상징의 체계, 상호작용하는 의미의 양식으로서 권력에 주목한 바 있다. 이 관찰은, 16세 이후로 서구에서 등장한 국가론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이었다: “서구에서 나온 국가란 ‘무엇인가’에 관한 주요 견해들, 즉 한 영토 내의 폭력의 독점자, 지배계급의 집행기구,

공공의지의 위임기관, 이해조정을 위한 실용적 도구 등은 이러한 힘(국가권력을 창출하는 극장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 견해들 중 어떤 것도 이 힘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기어츠는 베버의 권력의 정치학, 맑스의 권력의 정치경제학을 네가라의 사례를 통해 비판하고자 했다. 기어츠의 대안은 권력의 미학이다.

『극장국가』에 따르면, 북한은 유격대국가가 만들어지는 1970년대부터 국가권력의 연극적 연출과 권력세습을 연계하는 극장국가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김정일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혁명예술’은 대중적 사회동원과 대중적 정치교양을 위한 것으로, 공공예술과 국가정치 사이의 구분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인위적 예술정치를 통해 카리스마 권력의 자연적 도태에 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강력한 현대적 극장국가”의 탄생이었다는 것이다.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와 같은 혁명가극이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파의 묘역인 혁명열사릉의 개건사업 등을 식민지시대 항일무장투쟁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극장국가의 장치들로 보는 것이다. “1930년대 김일성의 영웅적 행위”를 “살아 있는 전통”으로 만드는 작업이, “유격대국가는 극장국가의 예술정치에 내용을 제공하고, 극장국가는 유격대국가의 전설과 통치권 패러다임에 형태를 제공한다”는 이론적 연명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극장국가』의 핵심적 진술이다.

1994년 ‘초월자’ 김일성의 생물학적 죽음으로 야기된 “대국상”은 카리스마 권력의 관례화의 위기였다. 북한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는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보다도 “대국상”은 『극장국가』의 ‘시각’에서 보다 심각한 위기였을 것이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배계급은 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금수산궁전의 개축, 조선로동당창건기념탑과 같은 극장국가를 위한 대형 구조물을 만들고 있었음에, 『극장국가』는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아버이의 기억을 간직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자식들이 목숨을 잃은 엄청난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는가” 라는 가족국가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극장국가』의 지적은, 결론에서 지적되듯 외부의 시선일 뿐이다.

## 칼럼 연재

『극장국가』는 북한식 극장국가의 기원을 1970년대로 소급했지만, 와다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식 극장국가는 1994년 “대국상” 이후 만개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10월 미국과 제네바합의를 한 이후,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인지 아니면 그 합의 자체가 허구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북한은 선군정치를 시작했다. 선군정치의 정당화는, 『극장국가』가 말하는 것처럼, “한 국가의 연극적 장치가 그 국가의 실제 물질적 힘과 반비례해서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북한식 혁명가극의 완성판인 ‘아리랑’은 10만에 가까운 인민들이 출연해서 북한의 현대사를 정리하는 극장국가의 절정이다. 1926년 6월 김일성이 그의 어머니 강반석으로부터 받은 총, 1952년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총으로 상징되는, 선군정치와 함께 가는 ‘총대철학’에 대해, 『극장국가』는 “선군은 혁명주권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다면, 총대는 무엇이 진정한 인간을 만들고 무엇이 윤리적 삶을 구성하며 어떻게 의미있는 정치적 삶을 사느냐의 문제”라고 정리한다.

선군정치와 총대철학의 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장혁명투쟁의 전기적 역사는 단순히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집안의 계통문제로 제시되며, 따라서 그의 카리스마도 그 사람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내림을 받은 집안의 유산이며 정해진 운명으로 그려진다. 나아가 그를 이은 후계자의 경력도 동일한 시나리오를 반복하며 전통의 계승자이지 수호자로 그려진다. 따라서 이른바 총대철학은 대체 불가능한 개인적 카리스마를 세습적 카리스마로 대체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격화된 카리스마를 상속되는 권위의 형태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언명은 적절하다.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이 극장국가이면서 가족국가인 북한에서, “위대한 수령으로부터 권총선물을 받은 유일한 자식으로, 또한 북한 혁명사에서 위대한 수령이 가장 뛰어난 총대였던 어머니의 자식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북한의 카리스마 권력이 “역사적으로 구성된 정치적 친족관계”를 매개로 지속되는 기제에 대한 전형적인 기능주의적 설명이다.

이 설명은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보완을 필요로 한다. 첫째, 유격대국가·극장국가라는 유기적 정치체의 지체인 인민의 동의기제가 설명에 포함되어야 한다. 남녀관계조차 초월자를 매개로 한 삼각관계일 때 그 의미를 산출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극장국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인간중심이론인 주체사상이 “적절하게 지도만 한다면 인간사회는 개인적 카리스마의 지속성을 막는 역사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음을

주입하지만, 그 결과보다 인민의 자발성이 거세되면서 초월자를 수용하는 과정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는 인류학자의 작품인 『극장국가』가 가지는 비인류학적 결함이라 생각한다. 둘째, 고전적 비판이지만 권력의 미학만으로 카리스마 권력의 지속을 설명할 때, 권력의 정치학과 권력의 정치경제학이 실종될 수 있다. 『극장국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한 국가의 연극적 장치가 그 국가의 실제 물질적 힘과 반비례해서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유기적 정치체를 생산하는 권력의 미학도 물질적 차원을 내재한다. 하나는 초월자와 인민의 경제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초월자를 산출하는 지배연합의 구성과 관련된 정치적 차원이다.

『극장국가』는 책의 뒷 부분에서, 카리스마 권력의 관성을 절단할 수 있는 이행도 언급한다. 『극장국가』는 “선군시대 북한은 궁지에 찬 유격대국가이지만 실패한 가족국가이고, “북한정권이 진정으로 가족국가로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바란다면, 우선은 유격대국가 패러다임을 개혁해내고 만주 빨치산의 영광스런 유산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꿔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에 미래가 있으려면 극장국가로서의 스스로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북한에서 발생해야 하는 혁명은 “극장국가의 생명을 끝내기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통이든 제도든 새로운 초월자를 만들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초월자 스스로 초월자의 지위를 내려놓을 때, 유기체는 생명을 잃는다. 초월자의 퇴위에 저항하는 지배연합에게 초월자는 기호의 형태로라도 존재해야 한다.

관성의 법칙은 마찰과 저항과 같은 외부적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 작동을 멈추지 않는다. 큰 물체일수록 운동상태를 바꾸기 어렵다. 두 가지 가능성을 본다. 하나는, 『극장국가』에서 자세히 실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난의 행군 시절 생존을 위해 인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물물교환과 상호부조의 망이다. 이 망은, 유기적 정치체를 균열시킬 수 있는 북한적 시민사회의 단초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극장국가』에서 단편만이 언급되고 있지만, 국가를 다른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사고하는 것이다. 북한도 근대 국민국가처럼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힘의 균형을 위해 핵을 가진 유격대국가는 안보국가의 극단적 형태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전환이 있지 않다면, 극장국가의 수명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초월자와 지배계급은, ‘왜’ “카리스마 권력의 필멸성에 저항하고, 그러한 권위의 비영속적 성격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서사적 투쟁”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물어야 한다.

편집: 김민지 연구보조원, 이하연 연구교수